“이전삼기로… 수마노탑 국보 승격 도전”

〈二顚三起〉

정암사 · 정선군, 수마노탑 국보 승격 기원 ‘한창’

2011년부터 2차례 추진해 탈락
부결 원인 분석 · 보완 3번째 도전
9개면 100개 단체 응원 현수막

분황사계 모전석탑 전통 전승해
석회암 갈아서 만든 벽돌로 조성
조선 초 형성된 보궁신앙 대표塔

강원도 정선=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 5대 적멸보궁 중 한 곳인 강원도 정선 정암사(주지 천웅)로 가는 길. 정선 곳곳에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보물 제410호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국보 승격을 기원합니다.”

그렇다. 초가을에 찾은 정선은 지금 ‘정암사 수마노탑 국보 승격 기원’으로 뜨겁다.

이는 10월 2일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인한 장대비에도 아랑곳 않고 정암사 수마노탑 앞에서 기도를 올리고 탑돌이를 하는 주지 천웅 스님과 정선군 관계자들의 모습에서 느낄 수 있었다.

정암사와 정선군은 지난 2011년부터 수마노탑 국보 승격 사업을 추진해왔다. 문화재위원회에서 2차례 심의가 이뤄졌지만 모두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국보 승격을 위한 3번째 도전에 나선 정암사와 정선군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배수진을 쳤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학술대회만 4회가 개최됐고, 3차례의 발굴조사가 이뤄졌다. 또한 탑에 대한 정밀실측 및 모니터링 조사도 2차례 진행됐다. 지난 6월에는 정암사와 창건주 자장율사, 수마노탑을 대중에게 알리고 의미를 전하기 위한 ‘자장율사 순례길’도 개통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8월 문화재청의 실사가 이뤄졌으며, 이달 안에 관련 보고서가 작성되면 이르면 11월 중 국보승격 여부가 결정된다.

현장에서 만난 서건희 정선군 문화관광과장은 “두 차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해 많은 준비를 했다. 그 만큼 수마노탑의 국보 승격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4만여 군민이 수마노탑의 국보 승격을 기원하고 있다. 이 같은 기원 물결에 지역 개신교, 가톨릭계도 동참했다. 문화재청도 정선군의 염원을 실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장대비가 쏟아지던 10월 2일, 정암사 주지 천웅 스님이 수마노탑 앞에서 탑의 국보승격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정암사 수마노탑은 국보로 지정돼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수마노탑은 고려시대 조성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전석탑이다. 기단 6단 · 탑신 7층 · 상륜부로 구성돼 있으며 탑의 높이는 9m이다.

한국에서도 드문 모전석탑은 재료를 벽돌처럼 쌓아서 탑을 조영한 ‘전탑계’와 석탑처럼 적층해 조성한 ‘석탑계’로 나뉜다. 국보 제30호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 ‘전탑계 모전석탑’이며, 정암사 수마노탑도 이에 해당한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모전석탑은 국보 4개, 보물 5개이며, 이중 전탑계 모전석탑은 총 4개(국보 2개 · 보물 2개)다.

정암사와 정선군 측은 수마노탑이 분황사 모전석탑 계열 전통을 충실히 계승해 건립된 탑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진한 정선군 문화관광과 학예연구사는 “수마노탑은 분황사 모전석탑에서 확립된 전탑계 모전석탑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으며, 기단부터 상륜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모습을 갖춘 국내 유일 모전석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장율사, 사리신앙과 연관된 보궁신앙의 대표성을 가진 성보이며, 국내 유일 석회암 모전석탑인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암사 주지 천웅 스님은 “조선 초기 오대산을 중심으로 사리신앙이 일어나면서 자장율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정암사가 부각되고, 이에 따라 수마노탑이 사찰 가람배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수마노탑은 자장율사 및 사리신앙과 연관된 보궁신앙의 대표성을 보여주는 탑”이라고 밝혔다.

정암사와 정선군은 수마노탑이 국보로 승격되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정선아리랑과 함께 유 · 무형문화재가 공존하는 문화유산 도시로 발돋움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정암사 수마노탑은 정선군 최고의 유형문화유산”이라며 “수마노탑의 국보 승격이 된다면 정선군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정선아리랑과 함께 유 · 무형문화재가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는 문화유산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암사는 실사가 이뤄진 지난 8월부터 수마노탑 국보 승격을 기원하는 100일 기도에 들어갔다. 기한을 100일로 잡았지만, 국보 승격 발표가 날 때까지 기도는 이어질 예정이다.

천웅 스님은 “실사를 기점으로 승격 발표까지 100일 기도를 하고 있다. 승격 이후 순례객들에게 신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신행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한다. 이를 통해 정암사를 보궁신앙의 대표 성지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화합과 나눔으로 새로운 30년 맞자”

조계사 불교대학 설립 30주년 기념 문화축전 개최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총동문회기를 흔들고 있다.

조계사 불교대학이 설립 30주년을 맞아 9월 28일 조계사 경내에서 문화대축전을 개최했다. 주지 지현 스님을 비롯해 불교대학 총동문회와 재학생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즉다 다즉일 문화대축전을 열었다.

1989년 10월 조계사는 현재 불교대학의 모태인 여성불교교양대학을 신설해 2년 동안 500명의 수료생을 배출해 왔다. 매년 100명 넘는 동문 배출로 2006년 총동문회를 결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오늘 ‘총동문들이여! 조계사로!’의 표어처럼 조계사 불교대학 동문들이 함께 발전을 이끌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조계사 불교대학 기수별 동문들이 참여하는 금강경 합송 경연대회도 열렸다. 또 쌀 500석으로 자비의 탑을 쌓아 조계사 행복나눔 가피봉사단을 통해 불우 이웃에게 전달하고, 불교인재 지원을 위해 15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500만원을 수여했다.

노덕현 기자

봉은사, 서울 생전예수재 보유단체 지정

2016년 보존회 구성 후 성과…
국가 무형문화재 기관 추진



2018 봉은사 생전예수재 회향 무대서 진행된 의식의 한장면.

서울 봉은사가 주축이 되어 구성한 사단법인 생전예수재보존회(회장 원명)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52호 보유단체로 최근 지정됐다. 서울시는 10월 10일 시보를 통해 고시예정이다. 서울시보는 주간공시로, 지정 후 10월 3일 예정됐으나 개천절로 인해 10일 공시된다.

생전예수재는 전생에 지은 죄와 금생에 지은 죄를 살아 있을 때 참회하는 불교전통 의식이다. 조선 후기 〈동국세시기〉에 생전예수재 설행 기록이 있는 봉은사는 2016년 생전예수재보존회를 구성한 이후 올해 1월 서울시무형문화재 52호 종목지정까지 이끌었다.

사단법인 생전예수재보존회는 조계종 어산작법학교와 함께 생전예수재의 설행과 전승 교육을 통한 보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어산작법학교 학장 법안, 인오, 도피안스님 등을 지도교수로 하여 조계종 교육법과 어산학교 설치령에 따라 교육을 진행한다.

생전예수재보존회와 봉은사는 2018년 8월 종목지정을 앞두고 대규모 생전예수재를 설행한데 이어 올해도 8월 19일 입재, 10월 6일 회향까지 49일간 생전예수재를 설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조선시대 풍속을 기록한 〈동국세시기〉에는 봉은사에서 윤달이면 생전예수재를 지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이번 봉은사의 서울시 생전예수재 등재로 생전예수재의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추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문화재청은 생전예수재의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종목지정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천태종 단양 구인사가 주축이 되어 구성한 범음범패연구보존회와 생전예수재보존회 등이 보유단체 지정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노덕현 기자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 7기 65명 배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원택)가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 과정’ 수료생 65명을 배출했다.

민추본은 9월 19일 ‘7기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 수료식과 토론회에 이어 21~24일 백두산 및 북중접경지역 현장순례를 실시했다. 수료식에서 본부장 원택 스님은 “수료식이 진행되는 날은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이다. 지난해 특별수행원으로서 평양을 다녀온 입장에서 감회가 남다르다”며 “비핵화나 평화가 쉽게 오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남북이 무력을 쓰게 될 일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인사했다.

원택 스님은 이어 불교지도자과정을 마친 65명의 수료생들에게 각각 수료증을 수여했다. 아울러 마지막 강의인 4강은 ‘시대정신으로의 평화통일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진환 통일교육원 교수가 사회자로 나섰으며,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와 이연희 사단법인 겨레하나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윤호섭 기자

불교문화도시 부산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불교대축제

“1천 분의 스님과 10만(십만) 불자가 참여 합니다”

일시 : 2019. 10. 20(일) 오후2시
장소 : 부산시민공원 잔디광장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축제의 시간”
송가인, 모모랜드, 더보이즈

| 주 최 | 사)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주 관 | 불교문화대축제조직위원회
| 특별후원 | 범어사, 삼광사, 통도사, 해인사, 쌍계사, 진각종, 태고종, 법연종, 건봉사
| 후 원 | KBS부산방송총국, 부산MBC, KNN부산경남방송, BBS부산불교방송, BTN불교TV, 부산일보, 국제신문,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법보신문, e-붓다, 맑은소리 맑은나라, 부산시설공단
| 협 찬 | (주)동원개발, (주)경동건설, (주)삼정, (주)삼정기업, (주)BNK금융지주 부산은행, (주)고려화공, 은산해운항공(주), (주)국제식품, (주)대원플러스건설, 선보공업(주), 금상건설(주), 나라·동일의료재단, (주)송우산업, 세무법인 덕림, (주)금호, (주)DS종합건설, (주)건양산업, (주)동영골드프라자, (주)세강, 이진종합건설(주), (주)삼미, (주)고려노벨화약, 태금정(주), 누네빛안과, 고운세상김양제피부과, (주)와이씨테크

축제 당일 혼잡이 예상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